

빼기를 박자



2016년 집단교섭 제시안

1. 임금인상

회사명	제시안	회사명	제시안
계양전기	월 기본급 15,000원	에스제이엠	월 차당 63,000원
대원산업	월 기본급 90,000원	우창정기	
두원정공		주연테크	월 기본급 20,000원
신한발브공업		현대케피코	

2. 집단교섭 공동요구안

1) 지부교육위원 활동시간

2) 확대간부 수련회

- 회사는 년1회(8시간) 지부 주최 확대간부 수련회를 유급으로 인정한다.
- 수련회는 상장과 대의원 단위로 일정을 분리하여 실시한다. 단,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노사협의를 통해 통합 실시할 수 있다.
- 확대간부 수련회 일정은 최소 2주전 통보한다.

3) 지부 파견 합의사항 이행담보

4) 위험성평가

-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17호(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등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해 년1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한다.
-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험성 감소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개선을 추진한다.

5) 협약의 유효기간 및 효력

집단교섭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경신체결시까지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단, 집단교섭 협약의 효력은 참석, 서명날인한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된다.

2016. 08. 11.

금속사용자협의회 경기지역 관계사용자 대표

대창, 노답

대창 사측이 지금 노답(No답)이다. 녀 달을 버텼는데 이젠 답이 없다. 지회 설립 후 4달 동안 금속노조를 회피한 무기는 휴면노조였다. 8월 11일 지노위는 휴면노조 해산을 결정했다.

5월에 지노위는 금속노조와 교섭하라고 했다. 회사는 항소했다. 6월, 중노위도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주자 '휴면노조 해산되면 교섭하자', '단협 빼고 임금만 하자'고 했다. 7월, 지회는 쟁의권을 확보하고 대창 투쟁을 벌였다. 회사는 사무·관리직 대체생산을 시작했다. 지부는 7월 13일 파업을 하고 시화공단을 휘젓고 대창에 모였다. 회사는 그래도 버텼다. 회사의 시간끌기로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했다. 8월 6일, 대체생산에 투입된 사무직 동료가 기계에 협착, 사망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사무직들이 제대로 된 안전교육 없이 여러 공정에 투입되고 있어 추가 사고가 우려된다'며 전 공장 가동을 중단시켰다. 사고가 난 설비는 노조설립 전에도 현장 노동자들이 수차례 보안을 요구했던 것이었다. 회사가 제 때 교섭에 나와 정상적인 대화의 길을 걸었다면 없었을 안타까운 희생이다. 지회는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했고, 결국 대창 조시영 회장이 직접 유가족을 만나 사과하고 협의한 후, 14일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8.17 전면투쟁 선포

대창은 결국 8월 16일(화) 10시 교섭에 나왔다. 지회는 최소 주2회 교섭, 사측 일괄안 제시 등 밀린만큼 속도를 내자고 주장했다. 회사는 4개월 밀린 교섭을 주 1회 하자면서 노무사들에 대한 위임장을 내밀었다. 형식적으로 시늉만 하고 또 시간 끌 작정이다. 밖에서 온 노무법인이야 시간 끌면 돈을 더 버니 지연시키고 싶을 게 당연하다. 하지만 회사에는 득될 게 없다. 지회는 현장의 압도적 조직력을 유지하며 녀 달을 달려왔다. 휴면노조, 대체생산 등 회사가 무리하게 밀고 왔던 무기들은 모두 벽에 부딪혔다. 남은 것은 투쟁 장기화를 통한 조직력 흔들기, 안산지역의 사용자들과 관의 비호를 받는 것 정도다. 지회는 사측의 지연 전술에 휩쓸리지 않고 8월 중순부터 투쟁수위를 높여 전면투쟁을 몰아쳐 갈 것이다. 지부 운영위는 16일(화) '신생노조 승리에 집중한다'는 하반기 투쟁방향을 잡고, 대창에 빼기를 박는 투쟁을 결의했다. **8월 17일 4시간 파업 후, 15시 대창 앞 전면투쟁 선포 결의대회**로 간다. 향후 1주일,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는 실질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24일부터 대창에 대한 지부차원의 전면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다.

8월, 빼기를 박자

지부는 하반기 신생노조 승리와 8월 집단교섭 타결에 빼기를 박는 투쟁을 벌인다. 11일 14차 지부 집단교섭에서는 몇 개 사업장의 임금제시 외에 공동요구안에서는 진전이 없었다. (왼쪽 아래 사진) 교섭단은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하지 말고, 8월 중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인 안으로 낼 것"을 요구했다. 집단교섭이 9월까지 이어진다면 교란사업장에 대한 투쟁을 준비한다. 타결여부와 별개로 신한발브, 두원정공 등의 경영변수에 따른 투쟁, 시그네틱스 폐업대응 투쟁에도 대비한다. 현대그룹사 투쟁과 통상임금, 교대제 개편 등 쟁점을 안고 보충교섭을 진행 중인 현대케피코의 상황도 고려하여 변수가 발생하면 즉각대응할 투쟁 태세를 유지한다.

재벌개혁 고 노조파괴 스톱

금속노조도 중앙교섭 8월 타결을 목표로 속도를 내며, 유성과 갑을오토텍의 노조파괴 명령을 쫓는 투쟁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정규직/계열부품사 정규직은 품 안에 안정화하고, 그룹외부 부품사는 실시간 통제가 되는 부품사와 안 되는 부품사를 구분하여 통제를 넘어서는 부품사의 민주노조를 공격한다.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확산을 막고, 부품사 비정규직은 노조를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한다. 민주노조운동의 핵심 축인 금속노조의 조직력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전략이다. 갑을과 유성 등 부품사 민주노조에 대한 공격은 자동차 부품사가 다수인 경기지부와 무관하지 않다. 지부는 유성투쟁에 적극 복무하고, 갑을오토텍 투쟁에도 노조방침에 따른 집중투쟁, 이후 지부별 순환농성투쟁(9/3 경기지부)등 노조 방침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변수가 발생할 경우 투쟁에 적극 참가할 예정이다. 재벌개혁 투쟁 또한 7.22 최초이자 최대의 전조합원 파업상경투쟁 이후 하반기 투쟁으로 나아가고 있다. 재벌개혁은 단기적 의제가 아닌 만큼 꾸준히 밀고나갈 태세를 갖춘다.